

유가 사상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연구*

차오칭주(喬淸舉) | 중국 남개대학 철학과, 성균관대 방문학자
번역 고재석 |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Post-Doctor

■ **논문분야** 중국 근대 철학

■ **주 제 어** 유가 사상, 인권, 개념인식론, 제4세대 인권

■ **요 약 문**

17~18세기 서구 계몽 운동에서 유가 사상은 '이성'의 화신으로서 계몽주의 철학에 영감을 주었다. 유명한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유가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1948년의 UN "세계인권선언"에도 유가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는 근대 시기부터 서구 인권 사상을 수용하기 위해, 사상계에서는 유가 사상을 비판하고 무력화시키는데 주력했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유교 연구자와 중국 사상계의 적지 않은 학자들은 유가 사상에도 인권 사상이 있으며 서양보다 더 풍부하다고 생각해 왔다. 필자는 '개념인식론'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이런 관념들은 인권 사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인권과 동등하다면 이는 유가 사상과 인권 사상에 대한 오해일 뿐 아니라 인권 구축에도 아주 해롭다. 그러나 이는 유가 사상이 세계 인권의 구축에 공헌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유가 사상을 인권 관념 재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인권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전체 구조 속에서 사유하여 제4세대 인권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 접수(2010.1.27), 심사 및 수정(2010.6.11), 게재확정일(2010.6.14)

1. 근대 이래 서구 인권 관념 형성에 미친 유가 사상의 영향

17~18세기부터 유가 사상은 이미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인권 관념과 연관을 맺어 왔고, 유럽 근대 인권 관념 생성을 촉진한 바 있다.

1) 동학서점(東學西漸)

— 근대 유럽에 전파된 중국 문화

유가 사상이 유럽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의 역할이 크다. 명대 중기부터 청대 순치(順治)·강희(康熙)·건륭(乾隆) 시기까지 도미니크수도회(Dominican Order)·프란체스코 수도회(Franciscan Order)·예수회(Society of Jesus) 등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찾았는데, 그들은 서양 사람들이 중국도 역시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 문화를 서양으로 전파하였다. 그들의 중국 문화 전파 방식은 대체로 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중국 서적을 직접 서양으로 가져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글을 통해 중국 문화와 역사·철학 등을 소개한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중국의 서적들을 번역한 것이다. 선교사들이 서양으로 가져간 중국 서적은 매우 방대하다. 1682년 쿠플레(Philippe Couplet, 1624~1692)는 400여 권이나 가져갔고, 1694년 부베(Joachim Bouvet, 1656~1730)는 『통지(通志)』·『문헌통고(文獻通考)』·『영락대전(永樂大典)』·『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등의 서적 300여 권을 가져갔다. 선교사들은 또 중국의 상황을 소개하는 책을 대량으로 저술하였다.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일기인 『마테오리치의 중국筋記』, 장 바티스트 뒤알드(Jean Baptiste Du Halde, 1674~1743)의 『중화제국지』, 인토르세타(Prospero Intorcetta, 1626~1696)의 『중국의 철학자 공자』 등이 그것이다. 또 4종의 라틴어와 3종의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영어로 출판된 『마테오리치의 중국筋記』는 비교적 상세하게 16~17세기의 중국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 당시

서양지식인들의 중국과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켰고, 장 바티스트 뒤알드의 46권이나 되는 저작 『중화제국지』는 18세기 서양에서 편찬한 중국 백과사전으로 불리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선교사들은 또 대량의 서적을 번역하여, 서양이 직접 유가 사상의 핵심인 “철학”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1661~1662년, 쿠플레 등은 지속적으로 『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였고, 또 그는 1687년 인토르세타 등이 번역한 『대학』·『중용』 등을 편집하여 『중국의 철학자 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를 파리에서 출판하였다. 책 뒤에 쿠플레가 편찬한 『중화제국연표 Tabula Chronologica Monarchiae Sinicae』와 중국 15개 성(省)과 115개 대도시를 표기한 지도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이 저작은 17세기 유럽에서 유가 철학을 소개한 가장 완벽한 저서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역경』과 마이야(P. de Mailla, 1669~1748)의 『통감강목(通綱)』은 모두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계몽운동 시기 사상가들은 이미 상당한 양의 중국 서적과 중국 문화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2) 세계 이성·인권 개념 형성을 촉진시킨 유가 문화

유가 문화는 근대 유럽에서 “이성”과 “인권” 관념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중요하고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7~18세기 유럽이 당면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계몽운동을 펼쳐 기독교의 속박과 봉건 군주 전체를 해체하고 “이성”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이성”은 정치 측면에서 군주전제 제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사상의 측면에서 기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신권(神權)과 군권(君權)이라는 이 두 대상은 중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가 사상에 의해 제약을 받아 왔다. 신권의 경우 주대(周代)는 “덕(德)”으로 천명(天命)을 보충하여 “천명은 항상되지 않고, 오직 덕 있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天命靡常, 惟德是輔)”는 관념이 출현하였고, 『논어』에서 말한 “공자께서

는 괴(怪), 력(力), 난(亂), 신(神)을 말하지 않으셨다(子不語怪力亂神)”는 것과 “귀신은 공경히 하되 멀리하라(敬鬼神而遠之)”는 것과 같은 관점은 유가 사상이 귀신에 대해 지녔던 이성적 태도의 기초를 다지게 하였다. 또 임금과 백성의 관계에 관해서는 주대에 이미 “민본(民本)”의 개념이 제기되었다. 덕과 민본을 중시하는 사상을 두고 천룡제(陳榮捷)은 인본주의(humanism)로 정의하였는데,¹⁾ 이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것이나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을 통달하게 하라(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는 것과 같은 것은 임금과 신민(臣民) 사이의 이익에 대한 형평성을 포함하고 있어, 평등 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가 사상이 중국 역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이 이러한 평등의 보편적 형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²⁾ 유가 철학의 이기(理氣) 개념이나 성선론, 자연법 사상 등은 서구 유럽이 신권을 해체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유럽의 계몽운동은 유가 문화 속에서 그들이 요구하였던 이성주의를 찾아냈다. 이는 유가 사상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구 유럽 사상가들은 중국 정치가 ‘당시 요동치는 유럽 정치 국면에 있어 하나의 이상적 모델로 작용’하였으며, ‘중국 민족은 순수 이성을 지닌 민족’으로 여겨,³⁾ 유럽 문화에서 부족한 이성을 중국 유가 철학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몽테스키외(Charle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는 법률은 곧 이성을 말하는데, 이성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백과전서파(百科全書派)는 중국 철학자에 대한 견해를 볼테르(Voltaire, 1694~1778)와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가 저술한 『백과전서사전(百科全書字

典)』의 중국 부분에 대한 소개에서 그대로 취하였다. 중국 민족은 함께 힘을 합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그들의 유구한 역사와 정신·예술·학문·정치·철학의 각 영역은 기타 아시아의 민족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그들이 지닌 우수함은 심지어 유럽의 가장 진보적인 민족과도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 백과전서파는 심지어 “유럽 정부는 중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⁵⁾ “우리가 중국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없는 일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다”⁶⁾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볼테르는 공자(孔子)가 신(神)을 말하지 않는 “유신론의 전형적 모델”이라 하였고, 디드로는 송명리학에서 강조한 “리(理)”가 기독교의 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의 공자”로 불리던 프랑스의 경제학자 케네(François Quesnay, 1694~1774)도 중국은 전제정치를 선도하고, 이 제도를 찬성한 나라라고 하였다.

유가 철학의 이성주의 정신은 또 독일 철학에 유입되어, “이성” 개념의 주요한 사상적 근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일본 학자 고라이 긴조(五來欣造, 1875~1944)는 『독일 정치사상에 미친 유교의 영향』이란 책에서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 1646~1716)의 이신론(理神論)·도덕관·정치관 등은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증명하였다.⁷⁾ 라이히바인(Adolf Reichwein, 1898~1944)은 『중국과 유럽』이란 책에서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Monadologia』은 중국 유·불·도 삼교의 덕성론과 유사하고, 그가 제기한 ‘예정조화’는 중국의 ‘천하의 도(天下之道)’와 매우 유사하다. 라이프니츠는 중국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세계는 통일성이 있고 정신적으로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진보(日新又日新)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매우 낙관적이었다. 그들은 종교가 모든 지식을 창조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고 그 목적은 사회에 유용한 행위를 하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1) Chan, Wing-Tist(1973),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4.

2) 馮友蘭, 1995, 「關於孔子討論中的一些方法論問題」, 『三松堂全集』 13卷, 河南人民出版社, 209쪽.

3) 賴赫淮恩(Adolf Reichwein), 『中國與歐洲』. 朱謙之, 1999, 『中國哲學對歐洲的影響』, 上海: 人民出版社, 196쪽에서 재인용.

4) 朱謙之, 1999, 앞의 책, 269쪽.

5) 朱謙之, 1999, 앞의 책, 273쪽.

6) 朱謙之, 1999, 앞의 책, 284쪽.

7) 朱謙之, 1999, 앞의 책, 223쪽에서 재인용.

유럽 계몽운동의 복음이기도 하다. 그들은 도덕이 곧 쾌락이고, 쾌락은 모든 사상의 최고 목표로 여겼다”고 기술하고 있다.⁸⁾ 독일 계몽 사조의 창시자인 볼프(Christian Wolff, 1679~1754)는 유가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 대학 측과 프로이센(Preussen) 국가와 충돌하여 추방당하였다. 그는 『중국의 실천철학』이란 책에서 중국의 이성주의를 높이 샀고, 이성주의야말로 진정한 도덕 원리라고 말하였다. 칸트(Immanuel Kant)는 볼프의 제자인 슐츠(Schultz)의 제자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역사철학』이란 책에서 “중국인이 인정하는 기본 원칙 이성(reason)은 도(道)라고 하는데, 도는 천지의 근본이요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하였다. 주첸즈(朱謙之, 1899~1972)는 헤겔 철학이 유가 경전인 『대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유가 사상이 유럽 계몽운동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공자의 관점이 『프랑스 인권선언』에 첨가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4조는 “자유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 개개인의 천부인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 권리를 누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만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제한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이 조목의 원형은 공자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에 있다. 볼테르는 이 말의 의미를 추종하였고,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는 이를 『프랑스 인권선언』에 반영한 것이다.⁹⁾

유가 사상은 또한 1948년 UN에서 통과시킨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관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당시 선언을 제정한 피에르 보리(Pier Cesare Bori)의 말에 의하면, 이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본래 “모든 사람은 형제이다. 사람

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성을 부여받았고, 또 한 가정의 성원이므로, 모두가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도 평등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의 기초 작업에 참여한 중국 대표가 “이성” 위에 마땅히 “仁”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들은 仁이 근본적인 동정이고 연민이며 측은함이므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편적 가치로 판단하였다. 토론을 거쳐 초안 작성자는 최종적으로 “양심”이란 두 글자를 추가하였다. 그가 보기에, 양심은 내재하는 도덕 법정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도덕 감정의 기초로, 이성이 반드시 배양해야 할 객관적으로 모든 이에게 드러나는 단서이다. 그래서 최종 원고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가 되었다.¹⁰⁾ 드 배리(William Theodore De Bary)는 이것은 서양의 개인적 자율(individual autonomy) 사상이 『세계인권선언』의 주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과 반대로, 공자와 맹자(孟子)의 인(仁)은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이 되었으며, 『논어』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천하의 모든 이가 모두 내 형제”와 같은 사상이 『세계인권선언』 속에 포함된 것을 드러내는 실례라고 보았다.¹¹⁾ 사실, 가정의 중시에 대해서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 3항을 보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기본적 단위 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섬너(Sumner B. Twiss)는 『세계인권선언』이 공자가 말한 “본성은 서로 가깝지만, 습관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性相近, 習相遠)”는 말의 영감을 받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유가 전통이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 충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헌할 수 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¹²⁾

8) 朱謙之, 1999, 앞의 책, 223쪽에서 재인용. 프랑스 철학에 대한 중국 철학의 영향은 維吉爾畢諾(Virgile Pinot), 2000, 『中國對法國哲學思想形成的影響』, 商務印書館도 참조할 만하다.

9) 析劍飛, 1991, 『世界的中國』, 學林出版社, 206쪽; 張騰霄·張憲中, 2000, 『馬克思主義與儒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쪽.

10) Sumner B. Twiss(1998), “A Constructive Framework For Discussing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in Theodore De Bary and Tu Weiming, ed.,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41.

11) Theodore De Bary(1998), “Preface,” in Theodore De Bary and Tu Weiming, ed., op. cit. 참조.

12) Sumner B. Twiss(1998), art. cit., p.41.

2. 근현대 중국에서의 인권 개념 출현과 그 맥락

1) 근대 중국의 맥락

근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인권” 개념이 출현한 것은 1897년의 일이다.¹³⁾ 이후 신문화운동 시기의 사상계는 유가 사상과 인권의 관계에 주목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당시의 사회 사조는 1840년 아편전쟁 이래 중국 근대의 좌절과 실패에 대한 반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가 사상이 봉건 전제주의의 핵심이고, 인성과 인도 및 인권을 말살하는 대표주자로 인식하였다. 1915년 9월, 천두슈(陳獨秀)는 『삼가 청년에게 고함』이란 글에서 “과학과 인권이 함께 중시되어야 한다”는 기치를 들어 ‘공교(孔教)’를 비판하였다.¹⁴⁾ 신문화운동과 5·4 운동 시기에 이러한 인권과 유가 사상이 서로 대립하거나 배척된다는 인식은 중국 지식인 계층에서 둘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본 관점으로 정착되었다.

2) 당대 중국에서의 인권 개념 출현과 유가 학설과의 관계

“인권”이란 주제가 현대 중국과 중국 이외의 중국학과 한학계의 학술 무대로 등장한 것은 1989년 하반기 이후의 일이다. 정치·외교적 문제가 하나의 학술 주제로 전환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가 철학이 인권에 있어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거나, 유가 사상의 몇몇 이념은 인권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학과 인권을 연계하여 고찰하기 시작한 학술 풍토는 미국의 중국 철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1983년 드 베리는 『중국의 자유 전통 The

Liberal Tradition in China』에서 송명 시기 유가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자기 깨달음(自得)”과 천하를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유주의의 특성으로, “인문 정신으로 세상을 완성시킨다(人文化成)”는 의미를 지니며, 그가 말한 “자유”는 일반적 “Freedom”이 아니라 “Liberality”를 가리킨다. 1998년 드 베리는 또 『아시아 가치와 인권 —유가공동체주의의 시각 Asian Values and Human Rights: A Confucian Communitarian Perspective』에서 이러한 자유 개념을 사용하여 유가의 “인문화성(人文化成)”과 유가의 자아 인격 형성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우며 자아 결정적이라고 보았다.¹⁵⁾ 그는 “유가개체주의”의 개념이 근대 서양의 자유주의(liberalism)의 개체주의가 아닌, “인격주의”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인격주의는 인격의 가치와 존엄을 야만적이고 교양 없는 개체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 전통과 토착적 사회 공동체 및 그 자연환경 속에서 모델을 만들고 완성된 인격적 자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¹⁶⁾ 이러한 자유 관념에 기초하여, 그는 중국 전통 사회 속의 “자원원칙(自願原則)”을 결합한 향약 조직(鄉約 組織)에 주목했고, 이를 유가 인권이 표현된 대표적 단체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유학은 본래 자유의 전통을 지니고 있고, 이 문화 이외의 추세나 영향의 도움이 없이도 인권을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¹⁷⁾ 1998년 드 베리는 또 뚜웨이밍(杜維明)과 함께 『유학과 인권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이란 논문집을 편찬하였다. 기본 관점은 현대 서양 인권 관념의 한계를 반성·비판하고, 유가 철학과 인권 관념의 친화성을 설명하려는 데 있다. 2001년 중국에서는 『유가와 자유주의』란 책이 출판되었는데, 뚜웨이밍과 루시안 파이(Lucian Pye)·도널드 먼로(Donald J. Munro)·헨리 로즈몬트(Henry Rosemont Jr.) 등의 글이 수록되었다. 이 논문

13) 金觀濤·劉清峰, 2008, 『觀念史研究: 中國現代重要政治術語的形成』,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508쪽, 537~539쪽.

14) 任建樹 主編, 2009, 『陳獨秀著作選編』1卷, 上海: 人民出版社, 162쪽.

15) 狄百瑞, 2003, 『亞洲價值與人權—從社群主義理論』, 陳立勝 譯, 正中書局股份有限公司, 64쪽.

16) 狄百瑞, 2003, 앞의 책, 25쪽.

17) 狄百瑞, 2003, 앞의 책, 180쪽.

들의 기본 경향은 『유학과 인권』에서 말한 것과 유사하다. 대체로 인권 개념의 보편성을 반성하고, 서양 특히 미국 인권 개념의 제한성을 비판하여 유가 전통과 인권 및 민주주의 연결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뚜웨이밍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들은 자유·평등·권리·공의·계약·공민 사회·민권·권리의 합법성 등이라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문제는 모두 유가를 통해 진일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 유학에서 말한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자강불식한다(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와 같이 인격의 자유 경지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찾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였고,¹⁸⁾ 헨리 로즈몬트는 “고대 유가는 자유주의보다 더욱 탁월한 측면이 있다.¹⁹⁾ 순자의 사상은 이미 인권의 제2대 내용에 해당하는 ‘사회와 경제, 인권 혹은 민주 발전’의 싹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²⁰⁾

중국 학술훈계는 외국 연구의 영향을 받아, 유학과 인권 관계의 인식 경향이 미국의 유가 사상 연구자의 관점과 같다. 중국 학자들의 관점은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유가에 비록 “인권” 개념이 없다 할지라도, 인권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천라이(陳來)는 본래 없는 것은 받아들인 후 있을 것에 지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이나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유가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²¹⁾ 둘째, 위룽근(俞榮根)과 리춘산(李存山) 등은 유가 전통에서 민본 사상의 요소는 민주 관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²²⁾ 셋째, 이 두 관점에 보다 더 적극적 의미가 있는데, 유가에 인권 사상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심지어 서양보다 더 풍부하고 완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

18) 哈佛燕京學社·三聯書店 選編, 2001, 『儒家與自由主義』, 三聯書店, 73쪽.

19) 哈佛燕京學社·三聯書店 選編, 2001, 앞의 책, 228쪽.

20) 哈佛燕京學社·三聯書店 選編, 2001, 앞의 책, 242쪽.

21) 陳來, 1998, 『儒家倫理與‘人權’價值』,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期, 59~60쪽.

22) 俞榮根, 2000, 『民權—從民本到民主的接轉』, 『船山學刊』1期; 李存山, 2005, 『從民本走向民主的開端』, 『浙江學刊』4期.

자(孔子)가 “부유하게 한 후에 가르친다(富而教之)”고 한 것이나 맹자(孟子)가 “백성들의 향산(恒産)을 마련해 준다(制民之産)·“향산을 마련한 후에, 상서(庠序)와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謹庠序之教)”와 같은 유가의 경제권과 교육권, 전국 시기 지식인들이 주유 천하하여 “처사횡의(處士橫議)”한 언론 자유권, 맹자의 “혁명”을 찬성한 유가의 인신 자유권(人身自由權) 등이 이에 해당된다.²³⁾ 넷째, 관점은 가장 독특하다. 대륙 제4대 신유가의 대표적 인물인 장칭(蔣慶)은 유가 사상이 서양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과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²⁴⁾ 그는 유가 사상의 정화를 주장하여, 유가 사상 속에서 근대 이래 서양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제거하고, 중국 고대의 왕도 정치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⁵⁾

3. 개념인식론을 통해 본 유가 인권 관념과 근대 인권 개념의 차이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유가 사상이 꼭 인권 사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의 차이를 보지 않고 동등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서는 “개념인식론”을 가지고 그간 학계 인식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개념인식론은 제기된 개념과 그것의 사용, 그리고 사용 과정 속에서 그 개념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인류의 인식 활동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개념인식론은 논리성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식론에 있어서 “인권” 개념(C: concept)의 각각 함의(N: notion)는 그것의 각기 다른 항목(I: item)에 해당된다. 개념의 한 함의나 의미는 그 개념의 항목과 같다는

23) 公, 2001, 『儒家傳統與人權·民主思想國際學術討論會綜述』, 『東岳論叢』6期; 李存山, 2001, 『儒家的民本與人權』, 『孔子研究』6期.

24) 중국어에서 Humanism은 人道主義, 人本主義, 人文主義로 번역되며 각각 의미가 다르다.

25) 蔣慶, 2004, 『王道政治是儒家的治國之道』, 『蔣慶文集』, <http://www.zgrj.cn>.

것으로, “ $C = in_1 + in_2 + in_3 + \dots + in_n$ ”의 도식이 성립된다. 다시 말해, 개념의 의미는 그것의 개개 항목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는 매우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그런데 이를 중국과 서양의 인권 개념에 비추어, 유가에서 말한 각각 권리의 의미를 모두 합하여 서양의 인권 관념에 대응시켜 보면, 개념의 의의가 그 의미와 항목의 총체와 같지 않고 더 큰 상황이 발생한다. 바로 “ $C = in_1 + in_2 + in_3 + \dots + in_n$ ”이 아니라 “ $C > in_1 + in_2 + in_3 + \dots + in_n$ ”이 된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분명 지적해야 할 것은, 한 개념의 의의가 적어도 그것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HC: historical context), 형식 특징(FT: formal trait), 운용 실제 효과(RE: real effect), 의미의 개방성(NO: notion openness) 등의 네 측면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측면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도식으로 나타내면 “ $C = HC + FT + RE + IN + NO$ ”가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유가와 인권 관계에 대한 인식은 다섯 가지 가운데 한 측면인 함의(N: notion)와 항목(I: item)만을 파악하고 네 가지 다른 항목을 소홀히 해왔다.

우선 인권 개념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한 개념의 “자재성(自在性)”이 된다는 것이다. 즉, 한 개념의 의미는 그것을 제기한 자가 그것은 “다른 것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의 개념”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각 의식은 개념에 반영되어, 개념의 “자아 동일성” 혹은 “자성(自性)”이라고도 한다. 만일 이 개념이 없고, 흩어져 있는 개념의 여러 항목과 같거나 유사한 단어들을 모아 조합하더라도 이 개념과 같아질 수 없다. 개념의 “자성”을 담아낼 수 있는 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중국과 서양의 인권 개념을 비교하는 데 미루어 보면, 유가의 사람에 대한 “경제권”과 “교육받을 권리” 등을 합하더라도 유가가 꼭 “인권”과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개념의 자각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각 의식은 인권의 몇 항목의 내용을 합한

다고 해서 합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유가에서 인권과 유사한 부분을 직접 인권 개념과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는, 연구자가 이 개념이 현재 지니고 있는 문화 의식, 혹은 그것의 동일성과 연구자의 자아 의식을 고대 학설에 그대로 투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일종의 “대입”이라 할 수 있다. 대입은 해석이며, 지금의 시각에서 고전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일종의 발전이라 할 수 있지만, 고전 자체가 지니는 관점을 해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형식적 특징은 인권 개념의 “개인”성과 “권리”성이다. 인권 개념 속의 “인(人)”은 각각의 “개인”을 가리킨다. 유가 문화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인으로의 “인” 개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는 재산권을 강조한 “개인”의 성격이 없다. “백성들의 향산을 마련한다(制民之產)”라는 것에서 지시한 대상은 “수구지가(數口之家)”의 한 가정을 이르는 것이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양 인권 개념 속에는 개인은 자율과 자주의 특징이 있지만, 유가 문화는 개인의 “개성”에 대한 인식이 근대 서양 철학에 못 미친다.

형식적 특징 말고도 개념의 개방성, 즉 앞에서 언급한 NO가 있다. 이것은 변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개념(C)의 전체 의미도 하나의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는 개념이 그것의 각 내용과 항목을 모두 더한 것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의 다섯 가지 항목의 고정적인 총체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 의미의 개방성(NO)은 개념 사용의 유연성과, 또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이 말한 한 단어의 의의는 그것의 용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용도의 유연성은 하나의 통일적인 총체로 개념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정된 개념의 개개 항목을 합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인식에 따르면, 인권 개념의 의미는 제1대 함의와 제2대 함의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제1대에서 부각된 것은 정치권이고, 제2대에서 중시된 것은 경제권과 생존권이라 할 수 있는데, 제1대에서 제2대 함의로의 발전은 개념의 개방성(NO)을 드러내 준다. 인권 개념의 한 항목에 해당하는 의의와 유사한 개념은 인권 개념의 개방성과 용도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서양 인권 개념에서의 “권리” 성은 더욱이 그것만의 중요성과 근본적인 형식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권은 일종의 “권리”이다. 근대 이래, 서양은 계몽 운동과 전제 왕권과의 투쟁을 통해 정치 권리·인신 자유권(人身自由權)·경제권·교육권·언론 자유권 등의 권리를 획득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자각 행위였다. 권리는 행정 당국의 강제성에 대한 요구로 “확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박탈하거나 양보하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행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수여하고 배분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나 행정 당국은 법률에 서뿐만 아니라 행정 제도에 있어서도 인권의 실행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인권은 하나의 관념일 뿐만 아니라 법률 체계이고 제도 체계이며 실제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개념이 된다. 드 베리는 “건설적인 틀·법률의 보장·대항적인 권력 구조는 모두 이러한 개방적인 자문과 의견의 교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어떠한 자유주의 생존에 있어서도, 이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²⁶⁾ 이는 매우 일리 있는 견해이다.

유가 문화에는 “권리” 개념이 없다. 유가는 생명·재산·교육 등의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모두 “권리”를 언급하지 않았다. 공자가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런 후에 가르친다(富而後教)”라고 한 것이나 맹자의 “백성들의 恒産을 마련한다(制民之産)”는 것과 같은 관점은 모두 백성에 대한 “후대(厚待)와 “덕치(德治)”, “인정(仁政)”을 말하는 것이고, 대부분 통치자와 백성 간의 공통된 인식과 암묵적 계약이지 백성의 권리는 아니다. 예를 들어, 고대 사회에서는 농민이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지니지 않았고, 왕과 공유하였다. 백성의 권리는 강제적인 규제도 아니고, 백성과 왕 사이에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규제나 법률도 아니며, 일종의 유연한 “후대”와 “암묵적 계약”이기 때문에, “권리”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었으며, 심지어 장기간 없을 수도 있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혁명”이 발생

하였다. 실제로 “혁명”의 주권은 철저히 농민에게 있었다. 하지만, 중국 고대에서는 권리 의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하려는 이성적 흐름은 없었고, 끊임없이 폭력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유가의 이 관념들을 직접 “인권” 사상이라고 보는 것은 유학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깊이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고, 나아가 현대 사회의 인권을 건립하는 데에도 이롭지 않게 된다.

4. 유가 사상의 의의: 제4대 인권관

1) 제4대 인권의 기점

유가 사상이 꼭 인권 사상은 아닐지라도, 이는 유가 사상이 인권 사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가 사상은 인권 사상으로 전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인류의 존재 상황으로 볼 때 현대 인권 관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인류는 고도로 발전된 산업, 급진적 발전을 이룬 과학 기술, 이전보다 더 밀접해진 관계, 전례 없는 심각한 생태 위기 등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문제가 이미 전 지구적 문제로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기후변화·해수면 상승·수질 자원 부족·오존층 파괴의 확대 등의 문제들은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인류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망 속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과학의 발전과 교류의 증진, 그리고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인류 상호간의 영향과 의존은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되어, 이제 인류는 공동의 문제와 운명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근대 이래 순수하게 “개인”을 기본 출발점으로 인식한 인권관을 수정하고, “관계”라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관계

26) 狄百瑞, 2003, 앞의 책, 179~180쪽.

중심으로 인권 개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유가의 관념으로 보면, 사람과 국가는 모두 관계 속의 한 사람이고 국가에 해당한다. 인류는 반드시 전 지구적인 관점과 단순한 주권국가 및 개인주의의 시각을 넘어서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처리해야 한다.

개인과 국가는 모두 다른 사람과 이웃 나라와의 연계망 속에 처해 있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는 지구상의 어떠한 사람이나 국가에게도 일종의 책임이 지워져 있다. 하나의 개인과 국가의 존재는 다른 사람과 이웃 나라로 하여금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성을 포함한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는 남과 이웃 나라가 동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상황 아래,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완성시키거나 실현시킬 수 있다. 이것은 곧 『중용』에서 개인이 자기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은 타인과 만물로 하여금 자기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성을 말하며, 또 공자가 말한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우고, 자기가 통달하고 싶으면 남도 통달하게 한다(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는 것이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것이며, 『대학』에서 언급한 “혈구지도(絜矩之道)”에 해당된다. 이러한 “혈구지도”의 유가 정신은 제4대 인권관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한다.

2) 德性의 인권 개념화

제4대 인권관은 반드시 더 “적극성”을 지녀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행위를 억제하는 자유로 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양심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그것은 더욱 평등과 공동체, 그리고 정의를 중시한다. 그래서 더욱 뚜렷하게 덕성과 양지를 인권의 내용으로 간주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덕성을 인권으로 보는 것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모두 자기만의 쾌적한 삶을 위해 대량 소비를 하고, 자연

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줘 다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이산화탄소 자원의 확대를 도래하게 할 수 없다. 이는 우리들이 완전한 생명을 무한하게 자연 자원을 소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유를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삶을 택하는 사상으로 이해하며, 재산을 무한하게 상품과 자원을 점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권관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유가에서 말한 “인자애인(仁者愛人)” · “측은지심(惻隱之心)” · “천인일체(天人一體)”는 모두 제4대 인권관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주의의 관점은 분명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제4대 인권관은 개인과 국가를 남과 다른 나라, 그리고 자연과의 총체적 구도 속에서 사고하므로, 그것은 생태적이고 인류 평등적인 화해와 공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任建樹 主編, 2009, 『陳獨秀著作選編』 1卷, 上海: 人民出版社.

2. 단행본

金觀濤·劉清峰, 2008, 『觀念史研究—中國現代重要政治術語的形成』,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維吉爾·畢諾(Virgile Pinot), 2000, 『中國對法國哲學思想形成的影響』, 商務印書館.

張勝霄·張憲中, 2000, 『馬克思主義與儒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狄百瑞, 2003, 『亞洲價值與人權—從社群主義理論』, 陳立勝 譯, 正中書局股份有限公司.

朱謙之, 1999, 『中國哲學對歐洲的影響』, 上海: 人民出版社.

馮友蘭, 1995, 『三松堂全集』 13卷, 河南人民出版社.

哈佛燕京學社·三聯書店 選編, 2001, 『儒家與自由主義』, 三聯書店.

忻劍飛, 1991, 『世界的中國』, 學林出版社.

Chan, Wing-Tsit(1973),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De Bary, Theodore and Tu, Weiming, ed.(1998),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3. 논문

公, 2001, 「儒家傳統與人權·民主思想國際學術討論會綜述」, 『東岳論叢』 6期.

李存山, 2001, 「儒家的民本與人權」, 『孔子研究』 6期.

_____, 2005, 「從民本走向民主的開端」, 『浙江學刊』 4期.

俞榮根, 2000, 「民權—從民本到民主的接轉」, 『船山學刊』 1期.

蔣慶, 2004, 「王道政治是儒家的治國之道」, 『蔣慶文集』, <http://www.zgrj.cn>.

陳來, 1998, 「儒家倫理與‘人權’價值」,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期.

Abstr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Qingju Qiao(Nankai University, China)

■ **Key Word**: Confucianism, Human rights, Concept epistemology, The fourth generation human rights.

In the Enlightenment movement in Western Europe betwee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Confucianism played an important role as “Reason” and inspired Western European Enlightenment philosophy. The Frenc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1789) absorbed Confucianism within itself, as di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48. But, in China, by contrast, and somewhat ironically, since the beginning of its modern period in 1840, what intellectuals did was to criticize — and, indeed, to erase — Confucianism from its ideological tradition, in order to introduce ideas about human rights into China. Since the 1990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quite a few American and Chinese Confucian researchers, who have been advancing the conflicting view that there are Confucian human-rights ideas which are much richer in content than their western counterparts in

the history of Chinese thought. Using a theory-of-concept epistemology as my methodology, I would like to point out, however, that these are not thoughts about human rights. If they are confused with the latter it will result in a misunderstanding of both Confucianism and the ideology of human rights, and, at the same time, will place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the world in an unfavorable situation. Nevertheless, this does not mean that Confucianism cannot make a contribution to human rights. As humanity is now being confronted with severe ecological crises and other problems, we can, by adopting Confucianism, reconstruct the idea of human rights by placing the human being into the entire framework of society and nature, and, thus, to create the fourth generation of human rights.